

출신고교 () 수험번호 () 성명 ()

<유 의 사 항>

1. 시험시간은 120분임.
2. 답안에 문항 번호를 쓰고, 한 칸 띄우고 시작할 것.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5. 제목을 쓰지 말 것.
6. 답안 작성은 흑색 펜만을 사용할 것.

* 다음 <제시문>과 (자료)를 읽고, [문제 1]~[문제 3]에 답하시오.

<제시문 A>

The essential feature of language is that it is used in communication, and some scholars argue that language can operate in communication without context. They say that language is a matter of logic and a correct use of language presupposes¹ the use of logic. Logic is a self-defined system that can be proved completely and objectively. According to this view, sentences can be used unambiguously and few errors would occur in communication. Thus, a sentence can work well for communication without its context. This claim is based upon the belief that language is a logical system that consists of vocabulary and sentence-forming rules.

- Adapted from Jacob Mey, *Pragmatics* -

¹ 전제(前提)하다

<제시문 B>

Distortion of the message can take place during the communication process unless appropriate discourse¹ context is provided. In this sense, language cannot work for communication without considering the context. We may often hear someone use a quotation - for example, in defense of a political opinion or a religious viewpoint - only to hear someone else counter, "But that's not really what he (the original speaker) meant! You've taken it completely out of context!" We also become frustrated when something we have said is taken out of context, feeling as though we have been misquoted. We know intrinsically² that to ignore the original context of an utterance³ can misrepresent the speaker's intentions. Experiences like these tell us that context can affect an utterance's meaning.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ext and meaning.

- Bergmann et al., *Language File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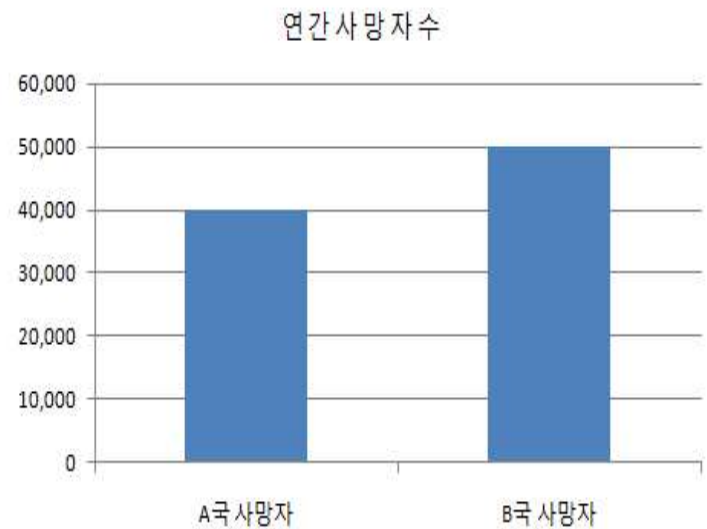
¹ 담화(談話) ² 본원(本源)적으로 ³ 발화(發話)

(자료 1)

미국의 ABC 번역회사는 컴퓨터 자동번역기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동번역의 기본 원리는 출발언어(source language)의 단어를 목표언어(target language)의 단어로 대치하면 번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장이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문맥 없이 단어들의 연결만으로도 정확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ABC 번역회사뿐만 아니라 미국의 몇몇 컴퓨터 자동번역기 회사들은 그 분야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으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번역 서비스 기술이 언젠가 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져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배우지 않고도 번역이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자료 2)

인구가 똑같이 300만인 국가 A와 B가 있다. 매년 국가 A에서는 약 40,000명이 사망하고, 국가 B에서는 약 50,000명이 사망한다. 단순히 사망자 수만 가지고 국가 A와 B를 비교하면, 국가 A가 국가 B보다 오래 살기에 더 좋은 나라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 A와 B가 처한 상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국가 A보다 국가 B에 노령 인구가 훨씬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면, 국가 A보다 국가 B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 A에는 국가 B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아서 국가 A에서는 사망자가 더 적다는 것이다. 이처럼 각 나라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제시된 자료만 단편적으로 이용하여 추론하면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자료 3)

‘대화적 관계’ 혹은 ‘대화적 삶’은 마틴 부버(M. Buber)의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개념을 통해서 인간 관계와 삶의 현상들을 파악하며 진단하고 있다. 인간의 참다운 관계는 대화적 관계일 때 가능하며 그래서 대화적 원리를 인간 삶의 기본 원리로서 추구한다. 부버가 말하는 진정한 대화는 말로 하든지 침묵으로 하든지 대화의 참여자가 그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의 의도에 귀를 기울여 둘 사이에 생동하는 상호성이 생기는 대화를 말한다. 그것은 ‘너’를 진정으로 들으려고 하는 ‘나와 너’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와 너’의 관계에서는 서로가 상대방인 ‘너’를 진정으로 들으려고 한다. 부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화의 내용이나 진행이 어느 일방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주도되지 않고, 서로의 관계와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대화나 대화적 삶은 반드시 상호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 이삼열, 「마틴 부버에서 본 대화의 철학」

(자료 4)

어렸을 때 겪은 일이지만 난 아주 기분 나쁜 기억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 6·25가 터지고 나서 우리 고향에는 한 동안 우리 경찰대와 지방 공비가 뒤죽박죽으로 마을을 찾아드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경찰인지 공비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마을을 찾아 들어왔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은 우리집까지 찾아 들어와서 어머니하고 내가 잠들고 있는 방문을 열어 젖혔다. 눈이 부시도록 밝은 전깃불을 얼굴에다 내리비추며 어머니더러 당신은 누구의 편이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 얼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전깃불 뒤에 가려진 사람이 경찰대 사람인지 공비인지를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답을 잘못 했다가는 지독한 복수를 당할 것이 뻔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상대방이 어느 쪽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채 대답을 해야 할 사정이었다. 어머니의 입장은 절망적이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절망적인 순간의 기억을,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가려 버린 전깃불에 대한 공포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

- 이청준, 「소문의 벽」

[문제 1]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공통 논제를 우리말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400자 내외)

[문제 2] <제시문 A>와 <제시문 B> 가운데 (자료 1)과 (자료 2)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것을 각각 선택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료 1)과 (자료 2)를 각각 분석하시오. (600자 내외)

[문제 3] (자료 3)의 관점에서 (자료 4)를 분석하고, (자료 4)에 나타난 상황을 극복하고 진정한 대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800자 내외)